



현장취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를 찾아서

밀실행정이 빚은 '안면도 항쟁'

이글은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 소속동부지구 상설공동 기자단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동안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를 취재, 공동작성한 글이다.
안면도 주민의 이번 '해피를 처리장문제' 이전에 있었던 해태양식장(=김양식장)투쟁을 통해 그간 고강도의 의식성을 담고자 하였다. 당시 계도원본의 보도형태를 비판하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 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충청남도 태안군 연육교를 따라 안면도에 진입하면 11월 초겨울이 낯설게만 느껴진다. 1년동안 썰물사만 잘 지으면 5년내내 주민들의 식량거리를 해결해 주던 옥토, 푸른대지속에 무성히 자라고 있는 들풀들, 빼어난 송림, 청정호수대밭들의 명랑들은 두달전 당국이 제2의 하와이' 같은 종합관광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충분히 입증해주고도 남을만하다.

그러나 지난 11월 3일 과학기술처가 안면도 일대에 방사선 핵폐기물처리장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발표가 있는 직후 안면도에서는, 근래에 볼수 없었던 최악의 농·어민 시위가 벌어졌다. 기동적으로 안면도 해피를 처리장 설치반대 투쟁위'를 구성하면서 주민 1백여명이 승인된 조계산까지 반대행진을 하는 기하적인 안면도내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70여명이 집단시위를 제출하고 주민 4천여명이 연육교까지 16km의 행진을 하기도 했다. 또한 초·중·고생의 등교거부, 주민 5천명 버스터미널에서 구기대회, 지역 청년 1백여명 무기한 단식농성뿐만 아니라 하루동안 행진하는 결장한 항거중 안면도·고생 약 5천명이 구기대회를 가졌고 서산여고 등 7개교 약 5천명이 가두진출, 주민 1만명 조계산 집결, 승인리 시장에도 1만명 집결.

충남시사의 3인에 대한 화형시...등등

발표가 있는지 불과 5일동안 전주인 1만7천여명중 1만2천여명 정도가 투쟁의 대열을 이루었다. 전주인들의 긴급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동참했던 주민 김동희씨는 "그때 당시에는 M-16뿐만 아니라 수류탄같은 무기한번 쥐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광주시태를 연상케 해주었습니다. 물론이 나더군요" 하면서 이번 싸움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불만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진것이라고 토로했다.

안면도는 이번의 해피처리장 설치문제 외에도 84년부터 '해태양식장' 주민들 둘러싼 생존권문제가 문제들의 생활속에 고질화되어 피폐해져서 있었다.

"83년 봄이여, 우리는 공사하는 줄도 몰랐지 물을 차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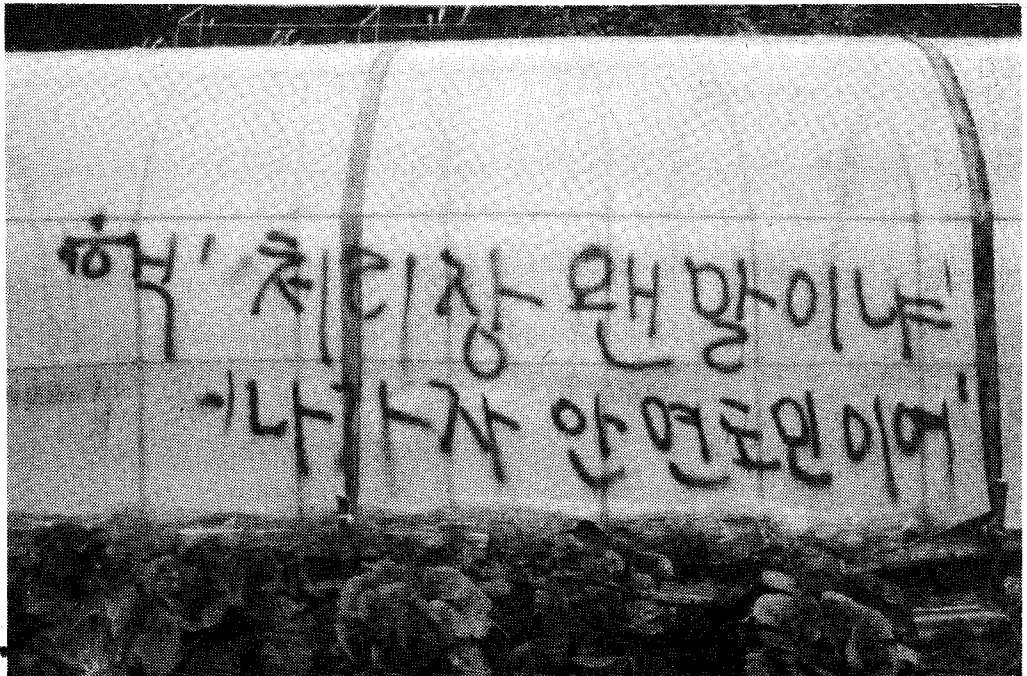
부터 길이 썩 물러나고 길이 노랗게 바래져 처음엔 갯벌이나 일기때문인줄 알았지"라고 말하는 중장리 주민 김홍식씨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그 당시 안면도는 주민의 30% 이상인 8백여대가 해태양식장에 종사하고 있었다. 현대그룹에서 83년부터 천수만 일대에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 독을 막음에 따라 조류가 약해지게 되었고, 간척지의 갯벌을 민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 약품으로 인해 해수가 오염되고 이지역 어민들이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을 올리던 조상대대의 해태양식업을 못하게 된것이다.

바다에서 생계를 의존하던 주

은, 씩어서 이기가 낀 바다의 실타래를 볼때 잃은것과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거론된 2차보상 문제는 1차보상때 터무니없는 액수에 불복하고 거절한 36명의 어민에 대한 보상문제도 결부되어 있다. 어민들은 '현대'의 정주영 사후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5~6백명이 상경해 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간척지로 인한 오염문제로 현대와 싸워오던 서산군 부석항에서 있었던 이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싸움에는 안면도 주민 3천여명이 참가해 요구를 관철시키려다 담장안에 실려 버려지기도 했다.

기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핵쓰레기 때모래 한사람 있는집은 한사람 나가고, 두사람 있는 집은 두사람 모두 나가서, 쫓겨나고 지내면서 살고 있어요."
해태양식장 문제를 정점으로한 그 파생적 요인들이 안면도를 퇴폐화시키고 있었으며 더이상 빼앗길 것도 없는 농어민들에게 핵폐기물 처리장이 삶의 터전마저 앗아갈 것이라는 절박감으로 다가가 이번 사건이 뜻하지 않게 커졌던 것이다.

지난 8월 안면고등학교등 7개 학교가 가두진출하여 전경들과



“아름다운 내 고향을 정부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불과 이틀만에 70%참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투쟁

민들은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1차보상액이(1제 2X40M)당 23만원정도 계산되어 1년생산비 정도에 그치지, 3년전부터 주민들은 또 다시 2차보상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1차보상이 양식면허업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1년정도 생산량의 배수인 '생물대'만 받을 것에 불과하였으며 어업권

"정주영이가 독을 막아놔서 물의 순환이 안되니까 그나마 생계가 되던 낚지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주민 김순영씨는 양식을 못하면서부터 그나마 소작을 지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근래에는 농사와 부근의 염전마저 가게를 상요하는 바람에 품앗이도 못하고 있다면서 어민들도 자식은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한다.

"이렇게 사는데 핵폐기물 쓰레

대치했음에 참여했던 안면고등학교 운동교 교사는 "아이들은 핵폐기물 문제가 다름아닌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싸웠지요. 저는 3월간 아이들이 따라 다녔을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처음 들었을때 얼떨떨했어요. 이곳은 아름다운 내 고향입니다. 이곳을 정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원상률·교1)

"자녀들이 먼저 잘못하고서 우

리 심사들이 데도 좀 했다고 크게 잘못이라면서 잡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김복영·교1)
"아직 계획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문서화되지 않아 화가 나요. 핵폐기물 처리장이 안면도에 생기는 것은 어찌구무도 없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속되어 있는 7명이 빨리 석방돼야 해요. 민일 석방되지 않으면 그만큼 댓가를 치를 겁니다" (김종애·교2)

어른들이 보여주는 지역감정도, 당국에서 조작하여 했던 외부세력의 개입도 엿보이지 않는, 안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절박한 고향사랑의 소망들이다.

8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후보자 선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지역주민들의 즉각적 거부로 중단된 바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 3월 충청도와 합의하여 '서해안핵연구단지' 형태로 안면도 입지를 겨냥하는 위장전략을 세웠다. 따라서 주민들과 일어난구 상의도 없이 안면도에 95년 12월까지 짓기로 한 중·저준의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의 건설장소를 결정하고 현지에서 100~150만평의 부지매입을 거의 끝낸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핵폐기물 처리 시설의 존재여부도 중요했지만 주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밀실행정과 하향식 행정체제에 대한 분노는 대대했다.

더욱이 '독상도는 핵이었고, 전라도는 독해서 못가고, 만만한 것이 충청도고, 태안군은 죽어야 하는가?'라는 홍보물에 서도 발견되는 지역감정의 형태가 사태의 사발에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핵폐기물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먹이사슬을 다양한 경로로 통해 인체에 암발생, 유전자 이상 등의 치명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선전이 주민들을 더욱 격화시켰다. 한편 각단체들이 모

통상마찰로 조명된 한-미 관계



최 상 호

<본보 기획 학술부장>

I. '호혜평등 원칙'의 전설

최근들어 대외 무역에의 통상압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면 결코 '호혜평등' 관계가 아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행정협정은 무랄라 나워도 없었던 나라와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여러 사들을 맞붙어 보면 결론은 '중주국'과 '중속국'이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게된다.

한가지 예외를 꼽자면 수출경제 측면에서 한국의 대미수출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실상 알고보면 수치의 무역수치가 갖는 한계를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즉, 미국과의 통상에서 얻는 흑자가 순수하게 남는 '알짜' 이익이 아니라 사실이다. 한국의 수출기반은 알려진 대로 '가공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또한 기술과 자본이 타국에서 비롯된다것은 경제학에 대하여 약간의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존적 관계는 한국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한국사회의 발전의 질곡으로서 작용해 왔음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예컨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통상압력이라는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깊이 관여하는 등의 사례들은 앞서 언급했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결론적으로 일방적인 요구의 당사자인 미국이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부의 나약하고 비주권적인 대응 방식이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과 실망만을 안겨주었다는 점이다.

사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치중함으로써 주권자의 투쟁수위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원면 핵발전소 건설예정, 대

생존권 수호위한 지구책마져 간섭하는가

II. 미국관리의 '개성' 발원

얼마전 미국의 한 관리가 우리측 정부인사에게 한국의 '소비억제운동'이 수입개방 문제와 관련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크게 불안스럽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보도된 바 있었다.

그렇잖아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한국국민들로서는 불만스러운 데도 일관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타국의 일개관리로 부터 '반협박'까지 들어야 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더욱이 잇단 압력에 대처하느라 나라살림의 기본 계측을 세우는 '연태경제협회의'마저도 이를 방치하리니, 나라살림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듯싶다. 한국국민으로서 볼때 그 관리의 언행은 다소 감정적인 언사였기는 해도 본래 의도는 서로 잘해보자라는 뜻이라'라고 생각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강대국이 '힘의 논리'를 합리적 해결'보다 우선시 해왔던 기간의 악행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III. 한국의 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의 일각에서는 썩기본종은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른바 '파소비 추방·우리적 우리가 애용하기운동'이다. 관주도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자생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더 더욱 의미를 부여받게 된 원인이다.

국민이 작게는 집안 살림으로부터 크게는 지역사회·나라전체의 살림을 걱정하고 그에따라 지구책을 강구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권에 속한다. 남이 간섭한다고 해서 간섭되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일개 관리에게까지 공격적인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제국을 하는 것이다.

몇해전 일본의 전 수상이 일본국민들에게 외제물건을 구입하라고 T·V까지 출연했던 한국을 상하게 본.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 여기서 우리가 한 나라의 수상이 '그런 작태'를 보였던 행위의 근저에는 그 나라 국민들의 철저한 '애국심'과 '자부심'이 깃들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간 둔감해졌을 때 이미 추진중이던 핵폐기물처리장이 보다 합법적으로 자생적으로 자리잡아야 할지도 모를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핵폐기물에 대한 당국의 반민중적 처리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수탈받고 착취당했던 농어민의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현대사속에서 경제적 탄압에 근거해성 이토록 강화된 투쟁역량을 가지고 정치적 사안에 대응해나간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때, 현시기 민중들의 위상을 다시금 각인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안면도 사태, 그러나 안면도 민중의 수탈받은 삶의 맥락에서 볼때 이는 분명 안면도 항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 연합 동부지구 상설공동기자단>

우리의 문화, 우리의 궁지 ④ 수영돌놀이

무형문화재 제 43호 부산 수영동에서 보존되고 있는 탈춤.
화려한 김군악을 시작으로 양반마당, 영남마당, 영감할마당, 그리고 사자춤마당으로 구성된 풍자와 해학이담백 담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백구야
월월 나지를 마라

궁거리 장단에 어깨춤을 추어보자
수양반은 의젓하게, 양반은 노련하게,
중가도령 가불대며 탈판을 북두네.
수양반 사선자이 풍물치고 춤을 추고
말뚝이 마련잡고 거짓말만 회화할 제
뻔한 일 쌓인 감성 훌훌 털어버려.
자진모리 힘찬가락 우리들 마음일세.
다함께 어깨걸고 공동합창 노래하세,
'소인, 말뚝이 문안입니다' -

탈춤이란 민중 공동체적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엮어온 대다수 민중의 뜻과 삶의 결집이 독창적극형식에 의해서 꾸며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예전의 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의의발전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어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놀이문화를 전승해갈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 고유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